

# 인도, 선대 증가로 선원 부족현상 심각

## 톤세제 도입으로 인도선주들 선대확충

### 제3국 선원의 고용허용을 정부에 촉구

인도 해운기업들이 톤세제 도입에 따라 선대를 늘리면서 선원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airplay지에 따르면, 그동안 세계해운시장에 많은 선원을 공급해 왔던 인도가 자국선대의 증가로 선원공급 부족난에 직면했으며, 특히 사관급 해기사 부족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도 해운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산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일부 인도선사의 경우는 선원부족으로 선박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SCI), GE Shipping, Mercator Lines, Varun Shipping, Essar Shipping 등 인도의 주요 선사들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선사 가운데 Mercator, Essar 등은 현재 제3국의 선사들과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알려졌는데, 인도선주협회(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 INSA)의 쿨카르니(SS Kulkarni) 사무총장은 현재 500명 이상의 사관급 선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신조선 발주가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olani Shipping의 스리바스타바(AK Srivastava) 이사는 많은 선사들이 현재 노령자와 미숙련자들 선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선사간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인도선사들은 정부측

에 대해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의 선원고용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INSA 대변인은 인도 국적 선원들이 제3국 선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인도 국적선원들이 제3국 선사를 선호하는 것도 인도의 선원부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IMO 사무총장, 말라카 안전문제 협의 각료급 회합에서 행동강령 채택 바람직

국제해사기구(IMO)의 E·미트포폴로스 사무총장은 말라카해협에서의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각료급 회의를 통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장은 3월초 싱가포르에서 해상보안에 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에서 IMO가 예정하는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의 안전·보안·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각료급 회의를 통해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이 회합 참석자의 직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동계획의 중량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국제회의는 당초 7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연기하여 9월에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IMO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의 안전성이나 보안,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국제회의의 개최를 승락, 해협 연안 3개국과의 국제협력의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다.